

# 제약바이오사 “1분기 기대말라, 본격 성장은 하반기”

1兆 매출 제약사도 1분기 주춤  
기술수출 효과·신약허가 등  
R&D투자 효과, 하반기 가시화

<주요 제약·바이오사 1분기 실적 현황> (단위: 억원)

기업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유한양행	3771(11)	299(16.3)	322(52.2)
GC녹십자	3072(4.5)	154(6.7)	91(-51.2)
한미약품	2670(8.7)	250(-4.7)	148(31.4)
종근당	2330(6.6)	171(-10.9)	100(233)
셀트리온	2224(-9.2)	685(-41.2)	560(-32.7)

\*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은 2019년 첫 분기에도 실적 개선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늘어나는 연구개발(R&D) 투자와 그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매출액 성장은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영업이익 성장 역시 뒷걸음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9일 기업 정보 제공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1조원 매출을 기록한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1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GC녹십자는 지난 1분기 매출액은 3072억으로 전년 대비 4.5%,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7% 성장한 154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인슐린 주사제 ‘보믹스’의 판권계약이 종료되면서 전문의약품 부문 매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하지만 혈우병 치료제와 헌터증후군 치료제 등 신약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늘어나는 R&D 투자가 상반기 수익성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난히 R&D 투자 비중이 높은 한미약품의 경우에도 수익성은 역성장한 것으로 예상됐다. 한미약품은 지난 1분기 267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 전년 대비 8.7%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혈압 치료제 아모잘란과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렛 등 개량신약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중국 법인인 북경한미가 계

절적 성수기를 맞은 영향이 컸다. 다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 가량 줄어든 250억에 그칠 전망이다. 한미약품이 사노피에 기술수출한 바이오신약 에페글레타나이드의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되면서 R&D 비용에 약 500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종근당 역시 1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7% 가량 증가한 2330억으로 예상됐지만, 영업이익은 10% 이상 줄어든 171억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 1분기 종근당이 판매하는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가 약 1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당뇨병치료제인 자누비아 역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지난해보다 13%(15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R&D 투자비용이 큰 부담이다. 종근당이 개발 중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CKD-506은 현재 류마티스관절염을 대상으로 유럽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염증성장질환 후

기 임상 2상도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바이오기업 역시 실적 부진을 예고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1분기 222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 전년 대비 10% 가량 줄어든 전망이며, 영업이익도 41% 급감한 685억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메디톡스 역시 1분기 매출액 477억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17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가량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요 제약·바이오사들의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기술수출 효과와 신약 허가 등이 가시화되는 하반기부터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연구원은 “실적이 중요한 바이오시밀러나 독신 회사들, 그리고 상위제약사들 모두 상반기까지 실적개선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본격적인 개선은 R&D 투자 모멘텀이 가시화되는 하반기부터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한정판 ‘꿈을 전하는 칠성사이다’ 출시

롯데칠성음료 ‘영재장학캠페인’



롯데칠성음료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미술 영재아동의 작품이 담긴 한정판 ‘꿈을 전하는 칠성사이다’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꿈을 전하는 칠성사이다는 지난 2월 롯데칠성음료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영재장학캠페인’의 일환으로 선보이는 제품으로 한정 생산 및 판매된다. 이 캠페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능을 키우기 어려운 예체능 영재아동의 교육 지원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한정판 제품 판매수익금의 일부가 영재아동들을 돕는 후원금으로 전달된다.

이 제품은 총 3종으로 구성되었으며

김승현, 박아름, 이은유 등 세 명의 미술 영재아동이 그린 작품들을 칠성사이다 600ml 페트병에 담아냈다. 세 학생은 ‘맑고 깨끗한 자연사랑’이라는 주제에 맞춰 ‘자연을 떠날 수 없는 존재들’, ‘하늘을 나는 무지개 물고기’, ‘한여름 계곡에서 즐기는 친구들과의 물놀이’ 등 각자의 개성을 담은 그림을 그렸다.

/박민용 기자 parkiu7854@

## 가맹점 맞춤 처방으로 평균매출 20% ↑

CU, 클리닉 포 씨유 도입 ‘4년’



편의점 CU가 ‘클리닉 포 씨유(Clinic For CU)’ 도입 4년째를 맞았다. /CU

편의점 CU가 매출 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매출 개선 프로그램 ‘클리닉 포 씨유(Clinic For CU)’가 도입 4년째를 맞았다.

9일 CU에 따르면 ‘클리닉 포 씨유’에 참여한 가맹점은 약 4000개이며, 프로그램 시행 후 평균 매출은 20% 이상 상승했다. CU는 올해부터 신규 매장에 이 프로그램을 집중하고 있다. 편의점 신규 매장의 성과가 개점 후 초기에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점 후 1개월 이내의 모든 신규 가맹점에 상생협력팀 임직원이 방문한다. 이들은 가맹 계약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초기 매장 운영과 관련한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점포 안정화를 돕는다.

상권 형성 지연 등으로 당초 기대보

다 낮은 매출이 지속될 경우, 가맹본부의 각 분야별 전문가와 담당 SC(Store Consultant), 가맹점주가 함께 협업해 대상 점포의 환경 개선 및 상품 최적화 등으로 가맹점주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진행 과정은 해당 점포의 내외 환경과 점포 데이터를 면밀하게 진단한 후 점포 안의 진열부터 레이아웃까지 매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한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안구건조증, 적외선 카메라 없어도 진단

황호식 가톨릭대 교수 연구팀 분석  
적색필터로 ‘마이봄샘’ 진단 가능



안과 황호식 교수 검사장면.

국내 연구진이 안구건조증의 원인이 되는 마이봄샘을 적외선 카메라 없이 촬영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마이봄샘이란 눈꺼풀에 있는 일종의 피지샘으로 안구표면에 마이봄이라는 기름을 분비하여 눈물막의 지질층을 형성한다. 이 지질층은 눈물의 증발을 억제하는데 마이봄샘이 막히거나 소실되어 기름이 분비되지 않으면 지질층이 얇아지면서 증발형 안구건조증이 나타난다.

이러한 ‘마이봄샘 기능장애’는 안구건조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황호식 교수 연구팀은 병원에 내원한 환자 총 64명 125안을 대상으로 적색필터와 세극등현미경만으로 ‘마이봄샘의 소실정도’를 확인하는 새로운 진단법과 기존 진단법의 정확성에 대해 비교 분석했다.

기존에는 적외선 통과필터,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눈꺼풀 결막 밑에 위치한 마이봄샘을 촬영했다(적외선 마이보그래피). 그러나 모든 병원에 이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마이봄샘의 소

실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새 진단법은 모든 안과가 구비하고 있는 세극등 현미경과 적색필터만을 사용한다. 위아래 눈꺼풀을 뒤집은 다음 세극등현미경 앞에 적색필터를 위치시킨 후 의사가 세극등현미경을 통해 직접 확인하거나 세극등현미경에 연결된 일반카메라로 촬영하여 마이봄샘을 확인한다.

이렇게 새 진단법으로 촬영한 사진과 기존 진단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비교 마이봄샘 소실점수를 0점(정상)부터 3점 (2/3이상의 마이봄샘 소실)으로 매겼으며 위아래 눈꺼풀 마이봄샘 소실점수를 합산하여 두 촬영법을 비교했다.

그 결과 새 진단법으로 평가한 마이봄샘 소실 점수는 기존의 적외선 마이보그래피를 이용하여 평가한 마이봄샘 소실점수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사대상 125안 중 70안은 두 진단법간의 마이봄샘 소실점수 차이가 0이었으며, 120안에 대해서는 1점 이하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새로운 촬영법으로 얻은 마이봄샘 사진을 동일한 검사자가 1달 간격으로 다시 마이봄샘 소실점수를 평가했을 때 상당한 수준의 신뢰성을 보였다.

이번 연구는 SCI 학술지 ‘각막(CORNEA)’ 2019년 5월호에 실릴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 하나제약, 레미마졸람 FDA에 허가 신청

하나제약은 독일 파이온(PAION)이 개발한 레미마졸람의 미국 계약사인 코스모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레미마졸람의 신약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독일 파이온과 라이선스인(기술매입) 계약을 통해 레미마졸람의 국내 개발권과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하

나제약도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레미마졸람(HNP-2001)의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종료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일본에서도 계약사인 먼디파마가 지난해 12월 일본 허가 당국에 레미마졸람의 신약 허가를 신청했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레미마졸람은 프로포폴(Propofol)

처럼 전신 마취의 빠른 유도 및 유지를 가능하게 하고, 미다졸람과 같이 호흡 억제 또는 활력 징후 불안정성은 거의 유발하지 않고 해독제를 사용할 수 있어 약효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의 장점을 모두 나타내고 있다.

회사측은 레미마졸람이 기존 정맥마취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마취제 시장을 안정적이고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세경 기자